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www.medisongroup.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서울코리아가 함께 응원합니다.

野 김은경, '노인편하' 논란 나흘만에 사과...대한노인회 사과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노인편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3일 '노인 편하' 논란을 불러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민주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요일 청년 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

"어르신 마음 상하게 한 점 정중히 사과...헌신·경륜 존중 새기겠다" "혁신 의지 그대로" 사퇴 요구는 일축, 눈물 글썽이기도 대한노인회장, 김위원장 사진 때리며 "정신 차려"

이지(않으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노인 편하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춘천 간담회에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하는 등 해명과 유감의 뜻을 밝히긴 했으나 직접적인 표현의 사과를 한 것은 해당 발언 나흘 만에 처음이다.

당에서 전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당 내에서도 직접 사과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자들에게 "어르신들 헌신,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들겠다. 그런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다"며 "앞

으로 이런 상황 일으키지 않게 더 신중히 발언하고 지난 며칠간 저를 질책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라며 일축했다.

가자들과 만남 직후 김 위원장은 황희 의원 등과 함께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 김효일 노인회장 등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비하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 했다"면서 "투표라는 게 이런 거라고 설명하다 보니 (발언이) 생각

지 않게 퍼져나갔는데 판단을 못 했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뺐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외치기도 했다.

노인회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들에게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을 아파게 해드린 것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말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국토부, 서울~양주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착수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90일간 제3차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부터 양주까지 21.6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다. 추정 사업비는 8천607억원이다.

국토부는 동부간선도로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연결해 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 구간의 교통 정체를 완화

하고, 수도권제1순환선·제2순환선을 연결해 국가 간선 도로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내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간선도로가 부족한 양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간선도로 기능이 보강되고 지역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성호 기자

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세월호 참사 9년만

美영주권자로 검찰 소환 불응하다 체포...인신보호 청원도 기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 백동현 기자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성사됐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심나 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백동현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복잡한 투자 전략도 내 맘대로 딱!

넣고 싶은 종목은 넣고, 빼고 싶은 종목은 빼고!
내 맘대로 완성하는 나만의 인덱스를 만나세요

투자 초보도 쉽고 간편하게 전문가처럼!

마음에 드는 전략 선택! 종목 선택도 내 맘대로!

리밸런싱으로 사후 관리도 꼼꼼하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719호(2023년 5월 12일~2024년 5월 11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B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자문 계약 체결 시 투자 자문 보수(수수료)는 연 0.5%로 분기 말의 이익 7명연임에 직전 분기 보수를 정수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자문 보수 외에 자문 결정 결과 내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세금, 기타 거래 관련 비용 등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KB증권

박영수, 두번째 구속심사 “번번이 송구...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9억 수수 혐의...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일 두번째 구속 길질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6월30일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4일 만이다.

오전 10시 1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이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전화를 부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손을 내젓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의 회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이러한 혐의로 6월 첫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그가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우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송진영 기자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아휴 싫어” 교사측 “부정적 편집”



웹툰작가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는 주씨의 아들을 상대로 “진짜 밍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 측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A씨 측에 불리하게 짜기됐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당시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여러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으로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씨 아들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며 “특히 훈육이나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임

해당 교사 ‘발언 내용’ 공소장 공개 검찰, ‘정서적 학대’ 판단

등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 확보한 특수교사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경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도대체 맨날 뭘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리고 있는 줄 알아?”라고 했다.

이어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장애인인 주씨 아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주씨 아들에게 한 문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씨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최근 불거진 직후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A씨가 계속 추궁하듯 말한 게 아니고 잘못을 알려주고 훈육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주씨 측의 경찰 신고 이후 직위해제된 A씨를 지난 1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복직 조치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며 “신고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 이문호 기자

김동연 “양평道 변경안, 기재부 협의도 안 거쳐...원안이 해법”

“2012년 이후 예타 노선 1/3 이상 변경 첫 사례...용역업체 주도도 비상식적”



질문에 답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변경안(강상면 종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안(양서면 종점) 추진을 제차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

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이 원안과 55% 바뀐 데 대해 이전 14건의 변경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1건의 사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으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은 5%만 바뀌었다.

김 지사는 “지침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이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

고 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문제 삼았다. 그는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며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 설명이다.

/ 박민욱 기자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NH카드텔 폭로’ 경실련 사무총장 “NH, 개발사업 손떼야”

“사업 입찰시 주관적 정성평가 없애고 가격경쟁 우선해야”

공기업이 장사하도록하는 구조가 악순환 원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질적 병폐를 폭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의 명단을 공개한 지난달 31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부실 공사가 LH 전관 특혜와 연관됐다는 이른바 ‘LH 카드텔’ 의혹에 한발 먼저 불을 붙였다.

정부도 이튿날 이런 LH 아파트를 둘러싼 민관 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경실련의 김성달 사무총장은 ‘반카드텔 분부’ 설치 등 LH가 내놓은 쇠신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LH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기존 공공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LH 영업이익이 매년 5조원”이라며 “건설물량을 늘리고 팔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성과급을 채우고 정부에 또 다른 토건 사업을 정책건의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를 바꿔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전관 특혜 논란이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쇠신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LH 전관 특혜가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수의계약과 종합심사낙찰제(중심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신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중심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심사위원들의 정성 평가에 의존해 전관특혜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시각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격 평가는 20%, 기술능력 평가라는 이름의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경쟁이 우선하는 입찰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경쟁이 저가 수주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현장들은 충분한 공사비를 줬는데도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무너졌다”며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제대로 감리하는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가격 경쟁을 통한 입찰은 공공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접시공제, 설계도면·공사비 내역서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감사원은 LH 계약을 수주한 상당수 업체가 전관 업체라는 실태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며 “이번엔 LH 전관이 불공정한 업체 선정, 불실실한 감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드러내 명확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진영 기자



감사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확대해야” 환경부에 통보

감사원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작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21일 앞둔 작년 5월 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루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제도를 현장

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상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려면 커피 판매점 등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반영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여윌돈을 준비해야 했다.

컵에 보증금 안내 라벨을 붙이고, 돌려받은 컵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수집·운반사업자와 위탁 처리계약도 해야 했지만 기준이 되는 고시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가 뒤늦게 정한 고시를 보면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이 고시 내용을 지목하며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작년 5월에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고려된 점은 일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규진 기자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활동 공식화

BBQ 손배소송 대리인 선임...검찰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 중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권순일(64·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중 bhc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대법원에 BBQ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권 전 대법관이 실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작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로도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판·검사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그의 등록을 승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



졌다. 퇴임 후 개인 사무실로 쓰던 곳이라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약속 클럽’에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였고,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광산도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광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지연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광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이후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수사 대상은 권 전 대법관이 되리라는 예상이 많다.

/임성훈 기자

권익위 “열차 좌석청소 주기 단축해야”

국토부·철도공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철도 차량 좌석 등의 오염도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결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철도차량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열차 좌우 팔걸이 시트의 오염이 심각하다’, ‘철도 시설의 위생관리 방법과 점검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열차 승객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다.

철도 차량의 위생환경 등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청소작업 기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KTX 등 고속차량 내부는 상시·일일 반복 청소를 진행하고, 좌석과 카펫에는 30~35일 주기로 진공 청소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런데도 국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만큼 ‘투명하고 명확한 오염도 검사 기준 마련’과 ‘철도 차량의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현민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일상의 금융에서 일생의 금융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오늘의 무게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특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오늘의 무게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권
BUSAAN, KOREA | NH농협금융이 증명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저축 NH농협카드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기대

“지지율 때문에 이러겠습니까”...尹이 밝힌 ‘호남 지원론’ 배경

전북 기업인들과 만찬서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 뜻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만찬에서 호남 발전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일 LS그룹의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어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전북 지역 지지율이 낮아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제가 지지율 갖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선 투자 협약식 인사말에서도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가운데) 등으로부터 전주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회적으로 표현해온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를 모처럼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만금에는 30개 기업이 6조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1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북 완주에 수소 산업, 익산에 미래 식품 특화 단

지를 각각 지정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요청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예산도 전액 반영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처 일정 액수를 삭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윤 대통령이 특별히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해주도록 하라”고 확실한 지원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 일정에 배석했던 김지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잼버리 행사장에 꼭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같이 방문해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도봉구청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오연석 도봉구청장에게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한총리, ‘냉방 공유’ 도봉구청 방문 “창의적 냉방 복지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서울 도봉구청과 창동역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먼저 서울 도봉구청이 지난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셰어컨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봤다.

셰어컨 프로젝트는 ‘나누다’(share)와 ‘에어컨’의 합성어로, 구청 공간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달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도봉구는 구청 1~2층에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독서방, 아이들 놀이방, 장기·바둑방, 안마의자방 등 11개 피서 공간을 마련했다.

그동안 소규모 휴게실 운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기존 지자체 냉방복지 정책과 달리 셰어컨 프로젝트는 대도시 주거밀집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모든 계층과 연령을 대상으로 한 공공 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도봉구청에서 주민들과 냉방 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최근 수해

를 입은 경북 예천의 특산물인 사과즙을 나눠 마시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도봉구청의 시도는 구민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름철 전력 수요 여유를 늘리는 정책”이라며 “지자체가 이런 창의적인 냉방 복지 정책을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시던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레 입소문이 나서 저절로 동네 사랑방이 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창동역 현대화 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운영질환 예방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휴게실 냉방 상태 등을 살펴본 한 총리는 “지자체와 공사 책임자가 물, 바람, 휴식 3대 기초 수칙을 제대로 지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백경준 기자

6·15남측위 “尹정부 굴욕적 외교행보...한반도에 다시 위기”



지난 4월 기자회견 개최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진보 시민단체는 3일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 통일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반도에는 팽팽한 군사적 대결과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측위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광복 78년 8·15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종전과 화해협력에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일본과의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것처럼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광복 78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수만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 윤종민 기자

박광온도 대한노인회 찾아 사과...”막말에 당황스럽고 안타까워”



3일 용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김호일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평화 발언 사과를 위해 방문한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평화’ 논란 발언과 관련, 대한노인회를 찾아 거듭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회장 등과 만나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당

황스럽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은 잘 모시는 것이 청년을 휴대하는 일이라고 대립 관계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회장께서 말씀하신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문제들은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풀어내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당대표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민주당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이 있는냐”고 묻자 “우리는 이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더 폭넓게 하기 위해 ‘에너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고자 제안해왔다”고 답했다.

/ 신현수 기자

윤재옥 “전국 6만8천곳 경로당에 10만원씩 냉방비 특별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 6만8천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송인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나”라며 “전기, 냉방을 맘대로 쓰고 필요한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6만8천여개 전국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아침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 청취했다”며 “특별한 더위이고, 사실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원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나 방식은 향후 정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로당 방문에는 강대식·김병민 최고위원, 종로구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

을 비롯해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동행했고, 지역 주민과 대한노인회, 경로 노인회 관계자 등이 맞이했다.

/ 신준수 기자

SAMSUNG

구형 TV 중고로 팔려야 새 TV로 바꾸자는 경제관념 확실한 우리 아내

상 받을 만해



삼성 TV로 바꿔보상

TV를 바꾸려면 바로, 지금.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최대 100만 포인트 보상 혜택부터 Neo QLED 189cm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지금 전국 삼성 매장 및 삼성닷컴에서 만나보세요. 2023.06.01~07.31

Neo QLED 8K | Neo QLED | QLED | OLED



17년 연속 세계관매 1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에서

• 최대 100만 포인트는 삼성닷컴에서 행사 기간 동안, 행사 기간 동안의 판매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 금액은 99cm 이상 Neo QLED 8K, 249cm 이상 Neo QLED 8K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성시 공무원시험서 차별 질문 받고 탈락한 장애인 2심서 승소

“직무 무관한 장애관련 면접위원 질문은 법으로 금지된 차별행위”

경기 화성시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정신장애인이 차별로 탈락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장애인 A씨가 화성시와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2년 정신장애 등록을 마친 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A씨는 2020년 4월 '2020년도 제1회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다. 이 시험에서 그는 저소득층 선발전형 합격선보다 높은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질문 외에도 장애 유형과 정



도, 장애 등록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

결국 A씨는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 면접에서도 '미흡'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A씨는 이런 화성시의 불합격 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면접위원이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2020년 12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

대와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채용 등의 면접과정에서 직무 이외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 질문이 아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추가 면접에서는 새로운 면접위원이 참여했고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아 차별행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로 화성시의 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화성시 등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통해 "정신장애인은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화가 났고, 꼭 바로잡고 싶고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마음이 가볍고 좋다"고 밝혔다.

2심에서 패소한 화성시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불합격 취소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한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권도훈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영상실질심사 출석

가출 미성년자에 성범죄... '신대방팸' 등 4명 기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섯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인 김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일원인 박모(21)씨와 임모(2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를 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신대방동을 근거지 삼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

은미 부장검사)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모(29)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올해 3~4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검경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된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한 미성년자 대상 자살방조, 성범죄 등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진성훈 기자

쌍방울 김성태도 옥중서신... "정치권의 희생양 되고 싶지 않아" '봐주기 수사' 민주당 주장에 "횡령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반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일 옥중 서신을 통해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자신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나온 지 약 일주일 만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쌍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은 이날 공개한 자필 서신에서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에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가는 작금의 사

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며 "최근에도 추가 기소됐고 검찰이 특정한 횡령 혐의 액수는 총 수백여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저와 제 가족은 물론 임직원 18명이 기소됐고, 이 중 11명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의 조사 대상만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부분이 '봐주기 수사'라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패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며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저급한 말로 저를 독방에서 홀로 쓴 눈물을 삼켰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SNS에서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적은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일부 정치인 이 저와 경기도 대북사업에 함께 했던 관련자들에게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민주당)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 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 강현민 기자

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신설 "한국을 국제중재 허브로"

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8일 신설된다. 법무부는 1일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국장을 포함해 2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국제법무국은 정확하고 실효적인 법률지원을 각 정부 부처에 제공하고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방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총회 유치 등 국제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재일 기자

SNS로 필로폰 유통·구매한 마약사범 경찰에 잡혀

SNS를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지인이나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한 뒤 A와 함께 필로폰을

유통한 중간 판매책,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단순 매수·투약자들을 잇달아 붙잡았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필로폰 49.95g, 대마 243g 및 마약 판매대금 480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총 7천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마약사범 17명은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8명, 여성 9명이었고,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 박정훈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월 6,900원

월 13,500원

월 4,900원

월 900원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러, 루마니아 코앞 항만 또 공습...젤렌스키 "세계가 대응해야"

우크라 다뉴브강 항구도시 이즈마일에 드론 공격...키이우도 목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항구를 또다시 공습했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의 이즈마일 항만 시설을 공습했다. 이즈마일은 다뉴브강을 경계로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남부 오데사 지역 이즈마일 항구의 곡물 저장고가 러시아에 의해 손상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즈마일은 다뉴브강을 경계로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단의 항구 도시로, 다뉴브강을 통해 러시아의 흑해 봉쇄를 우회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의 곡물 대체 수송로 이용되는 지역이다.

결과 산업 기반 시설이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간밤 오데사와 수도 키이우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의 사드 자폭 드론 23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세르히 포코 키이우시 군정 책임자는

키이우를 목표로 한 드론 10기를 모두 요격했으나, 드론 잔해가 추락하면서 일부 비거주 건물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보장한 흑해곡물

협정을 파기한 후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을 철화하고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남부 항만에 대해 연일 공습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뉴브강만 건너면 루마니아인 우크라이나 항만까지 공격하면서 나토와의 충돌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달 24일에도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오데사주 레니 마을의 다뉴브강 항만을 공격한 바 있다. 레니 마을은 이날 공격받은 이즈마일과 약 40km 떨어진 지역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항구와 곡물, 세계 식량 안보를 공격했다"며 "세계가 대응해야 한다. 민간 항구가 목표물이 되고 테러리스트들이 고의로 곡물 저장고까지 파괴하는 것은 모든 대륙의 모든 이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비난했다.

/ 홍순철 기자



오염수 문제로 대면한 일본 경제산업상과 후쿠시마 어민

어민, 원전 장관에 "방류 전인데 수출 안돼...소문피해 대책을"

일본 아오모리현 지역 어민이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원전 담당 장관에게 "방류 시기를 늦추더라도 강력한 소문(풍평) 피해 대책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어업 협동조합연합회 니키 하루미 회장은 이날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매우 불안하게 느낀다. 방류 전인데도 수출이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니키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방류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방류를 늦춰달라"고 말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개시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니키 회장에게 "중국, 홍콩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대응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응과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합치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울여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류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이달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 윤종민 기자

"인도, 中 비야디 세무조사...수입부품 관세 115억 미납"

"추가 세금·벌금 징수 가능성"...인도, 비야디 공장 설립 제안 거부

인도 당국이 중국 전기차 선두업체 비야디(比亞迪·BYD)가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텐센트과기 등 중국 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제세정보국(DRI)은 비야디가 인도에서 조립·판매하는 자

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6천360만위안(약 11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야디는 DRI의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DRI가 추산한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DRI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

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DRI는 비야디에 최종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야디는 지난달 초 현지 업체와 합작해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를 투자, 인도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인도 정부가 이를

/ 채정수 기자

中, G20 환경장관 합의 실패에 "일부국가 지정학적 문제로 방해"

중국 책임론 거론되자 외교부 입장문 통해 강하게 반발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환경장관 회의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G20 환경장관 회의는 합의문과 의장 요약문을 작성하고 긍정적인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국가가 이유없이 지정학적 문제를 끌어들이며 방해하면서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

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그러나 어느 나라가 어떤 내용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거론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반면 일부에서 제기되는 합의 실패의 책임론을 의식한 듯 탄소 배출 감소와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기후변화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입장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진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능력·책임·의무를 직시하

고 개도국에 기후자금과 기술이전을 제공하며 일방적인 조치·디커플링·무역 장벽 등 기후변화 협력을 방해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G20 환경장관들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인도에서 화석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환경장관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과의 논의가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 민도영 기자

美, 이번엔 몽골과 '항공 자유화' 협정...中·러 압박 가속화



류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미국과 몽골이 곧 양국 간 민간 항공기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접경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 속에 활로를 모색하는 몽골과, 역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이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미국 관리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하는 류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조만간 민간 부문 '항공 자유화'(open skies)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몽골은 남쪽으로는 중국에, 북쪽으로는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다.

몽골은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 한

국,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을 가까이 해왔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온 수밖에 없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국책항공사인 몽골항공은 현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여러 항로를 운영하지만 미국에는 취항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미국으로 직항하는 항공편을 띄울만한 승객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항공 자유화 협정은 국가간 화물 항공편에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과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영어 교육 제공을 비롯한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몽골에는 전기차 및 배터리 공정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과 구리가 상당량 매장되었으며, 몽골은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협력하고 있다.

이 관리는 "몽골은 30년 이상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우방국"이라며 "이번 만남에서 양국의 경제·상업적 관계, 우주 분야 협력, 기후변화 논의, 중국·러시아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언니냐는 말 들었어요
엄만데.



정릉동에 사시는 최명진님은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아침을 챙깁니다.

오늘, 시작하라

은퇴 후 걱정이 없도록 탄탄하게 준비한다.
미래를 생각, 미리하게 대비한다.
웨이브가이드와 비비비전 컨설팅을 추천한다.
삼성생명 건강자산을 시작한다.

당신의 건강자산, 오늘부터 시작
Let's 건강자산

LS그룹, 새만금에 1조8천400억 투자...이차전지 소재 공장 건립

전구체 생산공장 연내 착공...신규 일자리 1천450여개 창출

LS그룹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8천400억대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LS그룹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8천40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 33만8천928㎡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천45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투자는 2028년까지 1차 전구체 생산, 2차 황산메탈 생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인 LS-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이차전지 양극 소재(전구

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구체란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제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LS-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의 투자는 80%에 달하는 전구체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초강대국 K-배터리를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LS그룹의 투자를 환영하며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

가 크다"라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산업과 새만금 투자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고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와 엘엔에프의 동 큰 투자를 환영하며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LS그룹 유치로 현 정부 들어 총 31개 기업, 약 6조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직접 일자리 6천346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권종영 기자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15년간 560억 횡령에도 경남은행은 왜 몰랐나...내부통제 부실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부장)이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회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이 금감원에 A씨의 횡령 금액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지난달 20일이 돼서였다. 당시 경남은행이 보고한 사고금액은 77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다음 날인 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이날 기준으로 불과 10여일 동안 이뤄진 점검에서 A씨의 횡령·유용금액이 2007년 12월부터 A씨가

돼서야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회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이 금감원에 A씨의 횡령 금액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지난달 20일이 돼서였다. 당시 경남은행이 보고한 사고금액은 77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다음 날인 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이날 기준으로 불과 10여일 동안 이뤄진 점검에서 A씨의 횡령·유용금액이 2007년 12월부터 A씨가

검찰수사 계기로 뒤늦게 감사·적발...횡령직원 장기간 동일 업무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서 부장인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A씨가 이번 횡령 외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고서 수상함을 감지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자발적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가동됐기보다는 사실상 검찰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A씨의 횡령 범행을 적발하는 계기가 됐다.

자체 감사를 벌이던 경남은행은 지난 6월 21일야 A씨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으로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경남은행의 자체 감사역량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없지 않다.

경남은행은 4월부터 PF 거래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왔지만, 7월 전후가

업무에서 배제된 지난 4월까지 15년간 562억원에 이르는 잠정적 결론을 냈다.

경남은행이 당초 자체 감사로 적발해 보고한 금액보다 7배가 넘는 금액이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이 감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78억 외 나머지 484억원에 대한 횡령 등 혐의를 확인해 지난달 26일 2차 보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부서에 근무한 15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 워낙 많아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추가 횡령사고 여부 등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서뿐만 아니라 경남은행 창원 본점에도 감사반을 확대 투입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병훈 기자

하동 '복을 만드는 사람들', 냉동 김밥 10t 영국 수출



경남 하동군의 농업회사법인 '복을 만드는 사람들(복만사)'에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냉동 김밥이 영국 시장에 진출했다.

하동군은 2일 하동을 섬진강대로에 있는 복만사 본관 앞에서 냉동 김밥 영국 수출 선적식을 했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냉동 김밥은 10t 약 1만5천 달러로 영국 H-MART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영국으로 수출한 섬진강 쌀에 이은 냉동 김밥의 영국 시장 진출로 하동 농산물이 유럽 시장 개척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 수출업체의 유럽진출

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냉동 김밥을 만든 '복만사'는 지역민 취약계층 고용 비율 60%를 넘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직접 만들어 먹기 어려운 김밥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밀키트로 만든 아이디어 상품으로 2022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행복을 전달한다'는 비전을 담아 전 세계 각국에 냉동 김밥을 수출해 한국식품 'K-김밥'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 강동진 기자

폭염속 내주 '전력수요 최고' 전망...예상보다 예비력은 줄어

10일 92.7~97.8GW 피크 예상...한빛2호기 고장 등으로 공급능력 2.6GW ↓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주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때에도 전력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빛2호기 고장 등의 변수로 당초 예상보다 전력 공급 능력이 다소 줄어들었고, 한반도를 향하는 태풍 '카눈' 변수도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신 기상예보 등

을 반영해 전력 수급 상황을 재점검한 결과 오는 10일 오후 전력 수요가 92.5~97.8GW(기가와트)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고 수요 예측은 정부가 지난 6월 15일 내놓은 기존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시계' 전력 수요가 92.7~97.8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일정한 범위로 최고 전력 수요를 전망한다. 낮은 쪽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큰 '기존 전망', 높은 쪽은 예

상보다 더 더워 전력 수요가 커지는 등 전력 수급에 더 큰 긴장이 가해지는 상황을 가정해 산출된 '상한 전망'이다.

최고 수요 전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난 6월 전망과 비교해 공급 능력이 106.4GW에서 103.8GW로 2.6GW 감소했다. 2.6GW는 원전 약 2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여름 전력 최대 공급 능력이 역대 최고 수준인 106.4GW에 달해 한여름 전력 공급이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한지성 기자



하지만 약 1GW 설비용량의 한빛 2호기가 지난달 24일 고장 파급방지장치 개량 시험 중 갑자기 정지된 뒤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빛 2호기의 재가동 시점은 고장 원인 분석이 끝나고 나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 양산 열병합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기존 전망보다 공급 능력이 줄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협점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버스 운전자 구인 전쟁' 고양시, 파격적인 채용 개선안 제시

교육 시간 단축·숙박시설 지원·경기 북부권 교육센터 건립

경기 고양시는 버스 업계의 고질적인 운전기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시간 단축과 숙박시설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 운행률이 급감해 시민 불편이 커진 점을 고려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기도에 이러한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에 등록된 시내·마을버스 1천66대가 131개 노선을 정상 운행하려면 운전기사 2천411명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은 1천472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수 운전기사가 수입이 더 많은 배달업계 등으로 이직했다가 복귀하지 않은데다



고양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신규 채용 조건마저 까다로워 버스 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운전경력 1년 미만인 구직자가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려면 고양시에서 왕복 5시간가량 소요되는 경기 화성시의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15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덕양구 고양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기숙형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전자 양성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시는 운전자 양성 교육 기간을 시내버스는 10일, 마을버스는 5일로 각각 줄이고 교육센터 숙박시설을 교육생들이 무료로 이용토록 하면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석준 기자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예시안(평택평화예술의전당 조감도)

영등포구, 문래동에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첫발

옛 제2세종문화회관 후보 부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문래동에 '영등포예술의전당'을 건립하기 위한 첫발을 뒀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문래동 내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애초 문래동은 제2세종문화회관 후보 부지로 언급됐으나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구 소유의 문래동 공공부지 대신 시유지인 여의도공원에 해당 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구가 추진 중인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시는 올해 3월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고 문래동에는 주민 친화형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는 문래동 부지에 주민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구립 복합시설인 영등포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 공연장, 전시장, 창작공간 등을 조성해 문화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 건립 기본방향과 세부 시설 구상 ▲ 사업 전략·관리 운영 계획 제시 ▲ 주민 친화 공간의 활용 방안 ▲ 설문조사를 비롯한 수요 조사 분석 ▲ 국내외 유사 시설의 운영 성공·실패 사례 분석 ▲ 정책·경제·재무적 타당성 검토 ▲ 기타 복합문화시설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등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용역 비용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통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2천만원이다.

용역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17~21일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술제안서 등 제반 서류를 21일까지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께 나올 전망이다. / 임영선 기자

"도심 피서 즐기세요"...서울 숲·공원 곳곳 즐길거리 풍성

시내 6곳 무료 물놀이장...숲체험·야경 프로그램도

서울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도심 숲과 공원에서 가족·친구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2일 소개했다. 서울 시내 6곳에서는 이달 말까지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훈련원공원(중구), 광진숲나루(광진), 월드컵공원(마포), 노랑진축구장(동작), 방화근린공원(강서)에 문을 연 소규모 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 미끄럼틀, 에어바운스, 물총놀이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됐고 마술공연, 버블공연 등도 열린다. 비용은 무료이나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구에 문의해야 한다.

서울물재생체험관에는 1천52㎡ 규모의 대형 야외 물놀이대가 개장했다. 분수, 파이프 모양 놀이대 등 물놀이 시설과 대형 그

늘막, 탑의실, 야외사위기 등 부대 시설을 갖췄으며 최대 수심이 30cm로 유아와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좋다.

힐링(자유)과 생태체험을 결합한 공원 탐방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북서울꿈의숲에서는 흙 체험 '고마운 흙과 만나요', 개미·잠자리·꿀벌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꿈의 숲 보물을 찾아라' 등 초등학생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숲에서는 중학생 대상 '여름방학 공원캠프', 매미의 흔적을 찾아보는 '매미야 놀자', 곤충 날개를 3D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 '신기한 생물교실' 등이 진행된다.

길동생태공원에서는 식물·동물 관찰과 체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신나는 길동생태학교'가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서울식물원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식물원 일대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여름방학 어린이탐험대'를, 보라매공원은 '여름생태방학'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 백건우 기자

1만9천900원이면 경기 관광지 80곳 이용...투어패스 출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만9천900원이면 경기도 지역 관광지 80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투어패스'를 2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투어패스를 구매하면 31개 시군에 있는 관광지, 체험시설, 카페 등 관광시설을 48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광명동굴, 안성팜랜드, 파주 트릭아트뮤지엄, 가평 뷔띠프랑스,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화성 제부도서해랑케이블카, 양평 쉬자파크, 파주임진각평화공터, 포천아트밸리 등이 있다.

투어패스는 네이버 예약, 쿠팡, 티몬, 클룩 등 14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형 상품권'(48시간 내 이용·1만6천900원), 관광지 밀집지 '지역 특화권'(24시간 내 이용·1만4천900원), 테마별 '관광정책 연계권'(48시간 내 이용·1만1천900원)을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다. / 양희진 기자

오산시, 지역 전통주 판로·홍보 사업비로 1억원 확보



오산의 전통주

경기 오산시는 지역 전통주를 만드는 ㈜오산양조의 판로 개척과 홍보 강화를 위해 1억7000만원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을 기업인 오산양조는 증류식 전통 쌀 소주 '독산주'

와 경기미를 이용한 '오산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시는 최근 양조장 및 전통주 활성화 사업 관련 국·도비 5천7000만원을 확보한 뒤 시비 2천400만원과 오산양조 자부담 2천600만원을 더해 총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비는 ▲ 전통주 판매장 설치 ▲ 노후 시설·장비 정비 및 교체 ▲ 전통주 홍보시스템 구축 ▲ 전통주 홍보 물품 제작 ▲ 지역 연계 관광 상품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관재 오산시장은 "독산주, 오산막걸리 등 지역 전통주의 홍보와 판로가 확대돼 명실상부한 오산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쌀 소비량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남희정 기자

수원시, 쓰러진 택배기사 도운 아파트 주민들에게 표창

경기 수원시는 아파트에서 택배 배송을 하다가 쓰러진 고령의 택배기사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한 수원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 주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이 아파트를 방문해 이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택배기사 정순용 씨 부부와 주민들을 만났다.

이 시장은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은데 주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다"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나라 전체에 따뜻한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정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택배기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다"고 했다.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정 씨는 지난 달 17일 업무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혈관계 질환 수술을 받았다.



수원시, 쓰러진 택배기사 도운 아파트 주민들에게 표창

아내 주 씨는 남편의 중환자실 입원 이후 이날 택배 배송이 예정됐던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일이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오늘 배송 중 저희 아저씨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부득이 오늘 배송은 못하게 됐습니다. 병이 낫는 대로 배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 주민들은 정 씨를 위해 모금을 시작해 248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이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원래 100만원을 목표로 모금을 한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입주민이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택배기사님도 우리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금했다"고 말했다. / 신혜영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세심하게 지원해 주니까,
안심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맞짱 등극!

평하고 해를날이 오긴 오네요!

#신한카드 #소상공인지원 #시정님감동
#MySHOP파트너 #MyCredit #금융으로일상을이롭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MyShop 파트너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마케팅 통합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건강검진 예약/전용 소풍물 제공

MyCredit 서비스
금융권 최초, 개인사업자 맞춤 신용평가로 소상공인 지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은행간사 승인번호 제20230823+Exn-002연(2023.08.23~2024.08.22)

Lead by 신한카드

'취임 2년새 기소만 3건'...의령군수 잇단 재판에 지역사회 술렁

오태완 군수 2021년 보궐·2022년 재선 후 강제추행·선거법·무고죄 기소

경남 의령군수가 군정을 이끈 지 2년 만에 세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인다. 전직 군수들의 구속과 중도 낙마 등을 경험했던 주민들은 다시 한번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와 걱정을 나타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태완 의령군수는 현재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오 군수는 직전 군수인 이선두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2021년 4월 보궐 선거로 군수에 처음 당선됐다.

그는 그해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당시 오 군수는 사건 발생 후 피해 여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그해 6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등 오히려 그의 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돼 지난해 28일 무고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또 오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기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25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각기 다른 혐의로 잇따라 기소되면서 지역 사회는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다.

불과 2년 전 당시 이선두 군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 박현재 기자

그 직전 군수인 오영호 전 군수 역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주민에게는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오 군수마저 중도 낙마할 경우 다시 군정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

60대 주민 박모씨는 "단체장 임기가 4년이 보장되는 건 그 안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라는 뜻인데 계속 도중에 군수가 바뀌면 무슨 군정이 바로 서겠느냐"며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안타깝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강제추행이나 무고죄 등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울산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 입학해 취업·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31일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공동협력 선언식'을 열고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노정훈 기자



미술실기대회

한국·인도·일본 청소년 200명, 부산서 5~6일 예술축제

케이아트(K-ART)국제교류협회는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에서 '2023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K-ART국제교류협회 주최...문화예술 체험 교류 기회 제공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는 '2023 국제청소년 미술공모전'에서 수상한 한국, 인도, 일본 등 세계 각국 2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참가 학생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미술 실기대회, 한복·다도 체험, 케이팝(K-POP) 밴드 초청 무대, 예술교류 등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공유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인도, 일본 등 해외 학생 60여 명은 일주일간 국내에 머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에게는 부산대, 동아대, 제주대 등 지역 대학교 총장상을 수여한다

K-ART국제교류협회가 세계 각국의 미술학도들을 위해 행사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K-ART국제교류협회 허숙 이사장은 "청소년 예술축제는 미술 전공할 학생에게 폭넓은 교류의 경험을 통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의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39번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장민철 기자

울산대, 내년 1학기 학부 과정에 '이차전지 전공' 신설

울산대학교는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 과정에 관련 전공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대는 융합대학에 '이차전지 전공'을 신설해 내년 1학기부터 3, 4학년 100

명을 선발해 교육한다.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 현장 직무를 반영해 '이차전지 소재화학', '이차전지 제조 공정 및 설계', '이차전지관리시스템학'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울산대는 화학 분야 중견기업인 코스모화학, 코리아피티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차전지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개발'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64억원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울산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개설로 울산지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이 강

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울산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 입학해 취업·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31일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공동협력 선언식'을 열고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노정훈 기자

4·3유족회·경우회, 화해·상생 선언 10주년 합동참배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 재향경우회는 2일 국립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공원을 잇따라 방문해 '화해와 상생' 선언 10주년 기념 합동 참배를 했다.

참배에는 김창범 유족회장장과 고정화 경우회장을 비롯해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오순돈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제주도의회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장과 한관 4·3특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상을 제주경찰청장장과 차영민 해병대 제9여단 참모장, 황도연 해군 제7기동전단 부단장 등 군경 책임자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참배를 통해 화해와 상생을 위한 그동안의 교류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



유족회와 경우회 국립제주호국원에서 합동 참배

할 것을 확인했으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유족회는 전했다.

4·3 유족들의 모임인 유족회와 전직 경찰관 단체인 경우회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 8월 이념을 버리고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으로 지난 세월의 갈등을 치유하기로 선언하며 손을 맞잡았고, 이후 해마다 합동 참배를 이어오고 있다.

/ 광도영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 사이버 범죄수사팀 '전국 탑' 차지



대구 남부경찰서 사이버 범죄수사팀

대구 남부경찰서 사이버 범죄수사팀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관 2023년 상반기 전국 탑(TOP)-사이버수사팀에 선정됐다고 남부서측이 2일 밝혔다.

남부서 사이버 범죄수사팀은 지난 4월 1일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폭탄테러 예고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를 같은 날 검거했다.

이어 지난 6월 피해자 28명을 속여 월

세 보증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구속하는 등 총 890건의 사이버 사건을 처리했다.

남부서 사이버 범죄수사팀은 대구경찰청 내 '2023년 상반기 베스트 사이버 범죄 수사팀' 1위에도 선정됐다.

남부서 사이버 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사이버수사팀 전원이 피해를 본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창민 기자

제주도의회, 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사직서 수리



김경학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5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 의원의 의원직 사

직서가 2일 수리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강 의원이 5일 전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 사직서를 수리했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28세의 나이로 도내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된 강 의원은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 손현수 기자

설렘을 찾아서, 인천공항 Check-in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순간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특별했음을 알게 한 시간들
모두의 소중한 조금은 특별했던 일상으로

다시 시작, 인천국제공항

청주시,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총 405가구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택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반파·침수 피해를 본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에 위로금을 더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파의 경우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천만~3천600만원에 위로금 3천100만~6천700만원을 합쳐 5천100만~1억3000만원을 받는다.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 1천100만~2천600만원을 더해 보험금으로 5천600만~1억2천800만원을 받는다.

반파는 전파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침수 가구는 도배·장판 교체 명목의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위로금 300만원을 받는다.

청주는 405건의 주택 피해(보험 가입 14건·미가입 391건)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택 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위로금 등은 교부되는 대로 순차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성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오른쪽) 원내대표 만난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여야 상대 국고예산 확보 ‘강행군’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2024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과 김원이·주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이개호·김승남·윤재갑 국회의원, 박정식 전남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도 예산이 민선 7기 7조원대에서 12조원대로 확대, 1인당 지역 총생산 전국 4위, 도민 가구소득 전국 11위 등 도민 삶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며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서삼석 의원이 예결 위원장이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

하고, 각종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반영 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 확보와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강훈식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선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와 취약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한목소리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및 지자체 역할 강화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입법화 등 현안을 건의했다.

/ 문형근 기자

양구군, 축제 기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지역 식당·관광지 방문 등 조건 채우면 버스 임차료 지급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강원 양구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축제 기간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여행사가 방문 인원과 지역 내 음식점·관광지 방문 등 조건을 채우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다.

축제장 내 관광안내소에서 확인서 서명 및 단체 사진 촬영, 축제장 내 식사,



방문객 붐비는 청춘양구 편지봉 시래기 사과 축제

농특산물 구매 또는 유료 체험 등 관광객 1명당 1만원 이상 사용, 지역 음식점 1곳 이상 이용,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방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김강우 기자

이를 모두 이행하면 25~35명 규모 여행단에 버스 임차료 50만원, 36~45명 이내는 7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는 방문, 등기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축제 개최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내고 여행 종료 후 20일 안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경은 관광정책팀장은 “축제 기간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양구군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양구군 축제는 ‘국토정중앙 양구 배꼽축제’(9월 1~3일)와 ‘청춘양구 편지봉 시래기사과축제’(10월 28~29일)로 자세한 내용은 양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 브랜드 ‘홍실 고추’ 수매...“영양 풍부·당도 높아”

전북 임실군의 대표적 브랜드인 ‘홍실 고추’ 수매가 시작했다. 임실고추엔농산물가공판매는 지역 740여 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고추 수매를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매 계획량은 1천450t이며, 균은 수매 촉진과 상표 평판 제고를 위해 kg당 2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홍고추 수매는 농가가 꼭지를 제거하면 공장에서 수매해 세척, 건조, 포장, 출하 등의 공정을 대신함으로써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임실 홍고추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취득해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

고춧가루를 원하는 소비자는 직영 판매장(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399), 홈페이지(www.jbgochu.com), 고객센터(☎ 063-643-8949)를 통해 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발 250~300m의 중산간 지대인 임실은 낮과



임실 홍고추 수매

밤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188시간이어서 이곳에서 생산된 고추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당도가 높으며 과피가 두꺼워 질 좋은 고춧가루를 많이 생산한다”고 말했다.

/ 임희주 기자

강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강원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2일 오후 세종 정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국비 1억3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2018년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을 시작으로 6년 연속 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일자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과 우수 사업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

고자 2012년부터 열고 있다.

올해 일자리대상에서는 73개 지자체가 상을 받았다. 도내에서는 춘천시, 강릉시, 영월군이 공시제 부문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강화,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지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성준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충남서 가축 2만5천마리 폐사

폭폭 찌는 더위에 가축들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가축 총 2만5천156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돼지가 1천941마리, 산란계·육계·종계·토종닭 등 가금류가 2만3천215마리다.

지역별로 보면 홍성군이 6천243마리로 가장 많았고, 논산 5천416마리, 당진 3천963마리, 부여 3천54마리 등이다.

도 관계자는 “보험사를 거친 뒤 피해 현황이 들어오다 보니 집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수치는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위에 약한 젖소·돼지·닭 등은 30도 이상 고온이 지속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면역력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폐사한다.

/ 현우진 기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곧 이사 날도 다가오는데... 전세금 잘 돌려 받을 수 있겠지?”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우리 분양대금은 안전하겠지? 입주 때까지 별일 없어야 하는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책임지는 **[주택분양보증]**

대한민국 주佳고민 HUG가 해결합니다

SAMSUNG

Galaxy Z Fold5 | Z Flip5

사전판매 | 23.8.1 ~ 23.8.7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5핀 Fold 에디션은 별도 판매이며, Galaxy Z Fold5, Z Fold4, Z Fold3에만 작동됩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잼버리 반기문 마을에서 만난 대원들...“덥지만, 즐거워요”

기후 위기·빈곤퇴치 등 토론...“좋은 추억 쌓고 돌아가고 싶어”



반기문 마을에서 열린 자율 토론

“덥지만, 즐거워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일인 2일. 행사장 델타구역 끝부분에 있는 ‘반기문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마을’에서 만난 스카우트 대원 대부분은 “덥지만...”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 가리도(16)군은 “멕시코도 더운데 한국도 너무 덥다”며 “오래 걸었더니 발바닥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처음 왔는데 여러 친구도 만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옆에 있던 다른 대원들도 “한국에 와서 즐겁다”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손을 흔들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가이아나에서 온 네빌 맥도날드(15)군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더위를 여기서 느끼고 있다”며 “반나절만 걸어도 완전히 지친다”고 폭염에 혀를 내둘렀다.
날씨를 주제로 한참 대화를 이어가던 그는 잼버리 생활에 대해 묻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다”며 “이곳에 재밌고 즐거운 게 엄청 많다”고 즐거운 표정으로 답했다.
반기문 마을은 이번 대회 명예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이름을 본뜬 시설이다.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과 전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곳이다.
세계자연기금(WWF) 등 환경단체들도 이곳에 부스를 마련하고 스카우트 대원들을 상대로 기후 위기 심각성과 멸종 동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날 문을 연 마을 곳곳에서는 다른 국적을 가진 참가자들이 수시로 모여 세계 평화와 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일인 2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아영장 인근에 마련된 ‘반기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마을’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취재진을 보고 활짝 웃고 있다.

후 위기 등을 주제로 각자 생각을 말하며 대화를 꽃피웠다.
‘민국 공통의 언어’인 스포츠를 주제로 가벼운 연쟁을 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소속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마을을 지나는 대원에게 다른 대원이 장난스럽게 “호날두”라고 외치자, “노 노, 메시”라는 답이 돌아오는 식이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반기문 마을이 있는 델타구역 정비를 마치면 더 많은 대원이 이곳을 찾아 국적을 초월한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개성이가 열리는 밤까지 델타구역 정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2023 원주 댄싱카니발 9월 22~24일 개최...6일까지 참가팀 모집

2023 원주 댄싱카니발이 오는 9월 22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은 올해 댄싱카니발 경연 참가자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방문 접수는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재단은 참가팀 모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연·심사 방식, 순서표 등을 확정해 본격 공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모집 장르는 무용, 스트리트,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댄스 분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DVERTISEMENT
올해 댄싱카니발은 기존의 퍼레이드형 공연이 아닌 무대형 퍼포먼스를 통해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
참가팀 모집 이후 전문가가 심사하는 예선 영상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본선팀은 댄싱카니발 전야제가 열리는 오는 9월 22일 댄싱 공연장 특설무대에서 5~7분 내외의 퍼포먼스 무대를 펼쳐 경합한다.
수상 팀에는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2천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최종 상위 8팀은 9월 23일 개막식과 24일 폐막식 무대에서 각 4팀씩 앙코르 공연을 펼친다.
댄싱카니발 개·폐막식에는 초청공연팀도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댄싱카니발은 기존의 퍼레이드형에서 무대형 퍼포먼스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높은 퀄리티를 추구하는 축제로 방향을 잡았다”며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더 멋진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

-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용대출 기한연장 손님으로서 전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629점 이하 등 가계대출 차주
지원내용 적용금리 6%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상당액 최대 3% 범위 내 대출원금 매월 자동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프로그램**
지원대상 전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767점 이하인 가계대출 이용 손님
지원내용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대상자로서 주택담보대출(구입용) 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손님
지원내용 신규 취급시 최초 1년간 이자, 중도상환해약금, 인피세/채권일련으로 면제
- 다자녀가구 금리우대 프로그램**
지원대상 만19세 미만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로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기한연장 신청 손님
지원내용 2자녀가구 연 0.2%p(단, 목적용 주택면적 85㎡ 이하에 한함) / 3자녀이상 가구 연 0.4%p 우대
- 이자 캐쉬백 희망 프로그램**
지원대상 햇살론15 보유 중이거나 신규 신청하는 손님
지원내용 매월 대출잔액의 1% 상당(월환산) 금액 '하나머니'지금을 통한 캐쉬백

※프로그램 별 상세지원 요건이상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할수록 더+해지는 더 나은 내일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는 계속됩니다

-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화상청구 서비스
- 생명다양성·환경 보호를 위한 임직원 활동 참여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교육 활동
-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한장 공표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중소기업, 더 날개 돋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의 힘은 강해질 테니까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이강인 왔다!”...PSG, 팬 환호 받으며 부산 도착

PSG, 3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북과 대결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쿠알라렐라이 시리즈 3차전'을 앞둔 '프랑스 명가' 파리 생제르맹(PSG)이 300여명 팬의 환호를 받으며 부산에 도착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 선수단은 2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프리시즌 투어에 나선 PSG는 지난달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르아브르 AC와 경기를 시작으로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에서 알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 세레소 오사카(일본), 인터밀란(이탈리아) 등과 차례로 맞붙었다.

PSG는 3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K리그1 강호 전북 현대와 대결을 마지막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끝내고 한국시간 13일 오전 4시 FC포항과 2023-2024 프랑스 리그1 1라운드를 치른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이 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PSG는 3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프리시즌 매치를 부산에서 치르는 PSG 선수들을 보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에는 도착 시간을 한참 앞두고 이강인과 네이마르 등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든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응원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준비한 팬들도 많았다.

PSG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입국장에는 300여명이 넘는 팬들이 저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높이 들고 선수

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입국장 문이 열리고 엔리케 감독을 선두로 선수들이 나오자 입국장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지난 6월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부산을 찾았던 이강인은 PSG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았고, 팬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며 사인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PSG 트레이닝복과 모자를 쓴 이강인은 팬들이 내민 유니폼에 사인을 해준 뒤 곧바로 버스에 올랐다.

엔리케 감독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팬들이 준비한 유니폼에 직접 서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PSG 선수들은 이날 저녁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픈 트레이닝을 치를 예정이다.

/ 최준용 기자



지도하는 박인비

‘골프 여제’ 박인비, 슈퍼 루키 방신실에게 “너무 잘하던데요”

올해 4월 출산한 ‘골프 여제’ 박인비가 1년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인비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블랙스톤 제주에서 열린 ‘꿈나무 레슨’ 행사에 참석했다.

박인비와 세계랭킹 2위 고진영 등 프로 7명은 골프 꿈나무들이 스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세심하게 지도했다.

박인비도 “스윙할 때 어깨가 뜬다. 오른 쪽 어깨를 낮춰봐”라고 조언하는 등 어린 후배들을 보살폈다.

박인비에게 지도받은 김하은(11) 양은 “(스윙할 때) 피니시에서 (어깨가) 아팠는데 잘 배운 것 같다”며 “오늘 직접 보니까

완전 좋았다”고 웃어 보였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KLPGA 투어 ‘슈퍼 루키’ 방신실이 박인비에게 다가가 따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인비는 반가워하며 “TV에서 많이 봤어요. 너무 잘하던데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21승을 쌓았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 4대 메이저대회와 더불어 ‘골든슬램’을 달성한 선수다. 가장 최근 참가한 대회는 지난해 8월 열린 AIG 여자 오픈이다. 아직 구체적인 필드 복귀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 신현미 기자

‘세계 2위’ 독일전 앞둔 벨호...핵심 수비수 임선주, 훈련엔 복귀

독일전 출전 여부는 미정...이영주 “확률 작지만 없는 게 아냐”



왼쪽 줄아리 부상으로 모로코전에 결장했던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임선주가 독일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하루 앞둔 2일 오후(한국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스펠서 파크에서 훈련하고 있다

모로코와 경기 직전 갑작스러운 줄아리 통증으로 이탈한 여자 축구대표팀의 ‘핵심 수비수’ 임선주(인천 현대제철)가 훈련장으로 돌아왔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오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스펠서

파크에서 독일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과 독일은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7시 이 경기장에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을 치른다.

콜롬비아, 모로코에 내리 진 한국은 몹시 어려운 과제를 받았다. 독일전 5골 차승리가 없다면 즉시 탈락한다.

여기에 모로코가 콜롬비아에 저야 우리가 조 2위로 16강에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하나라도 겹치지 않으면 이번 훈련이 월드컵에서 ‘마지막 훈련’이 된다.

발목 인대 파열로 먼저 귀국한 골키퍼 류지수(서울시청)를 뺀 22명 선수는 세워둔 훈련 장비가 넘어지는 강풍 속에서 1시간가량 구슬땀을 흘렸다.

임선주도 그라운드에서 나타나 해맑은 얼굴로 훈련을 정상 소화했다. 핵심 수비수 임선주는 지난달 30일 열린 모로코와 H조 2차전에 앞서 워밍업 도중 줄아리 통증을 느껴 그라운드를 떠났다.

임선주가 빠진 대표팀 수비진은 경기 시작 6분 만에 이브티삼 트라야디에게 선제 결승 골을 허용했다.

경기 후로도 계속되는 통증에 휠체어

를 타고 생활한 임선주는 정밀 검진 결과 왼쪽 종아리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 아직 독일전 출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벨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선주의 건강 상태를 봐야 한다”며 “오늘(훈련에서) 한번 테스트하겠다. 내일 경기에 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벨 감독은 훈련장에서는 잔뜩 예민해진 모습을 보였다.

초반 15분만 훈련을 공개한 벨 감독은 약속한 시간이 되자 직접 취재진에게 다가 “미디어”라고 외치며 다그치기도 했다. 독일은 FIFA 랭킹 2위의 강호지만 벨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 전체가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벨 감독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영주(마드리드 CFF)는 “가능성의 문”이 아직 닫힌 게 아니다. 열려 있는 이상 그 좁은 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작지만, 없는 건 아니라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출정하게 된다면 죽도록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임형준 기자

신진서·박정환·변상일 바둑 태극전사들, 세계기전 몽백합배 우승 도전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프로기사들이 메이저 세계기전 몽백합배 우승 사냥에 나선다. 한국은 3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열리는 제5회 MLILY 몽백합배 세계바둑오픈전 64강전에 14명의 정예 기사가 출격한다.

한국기원은 랭킹 톱3인 신진서·박정환·변상일 9단을 우선 선발한 데 이어 국내 선발전을 통해 신민준·김명훈·안성준·원성진·홍성지·백홍석·최정 9단, 박건호 7단, 원제훈 3단을 뽑았다. 아마추어 선발전을 통과한 박승현·

최환영도 64강전에 참가한다. 주최국 중국은 전기 대회 우승자 미위팅 9단과 준우승자 셰커 9단, 와일드카드 구쯔호오·구리 9단 등 최다인 32명이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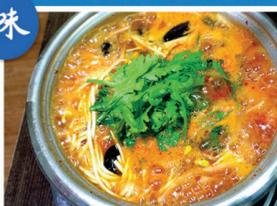
일본은 이치리키 료·시바노 도라마루·이야마 유타 9단 등 11명, 대만은 쉬하오홍 9단과 천치루이·라이원푸 8단 등 3명이 출사표를 올렸다. 북미지역에서는 케빈 양·알렉산더 치 초단, 유럽에서는 스타니스라프 초단(폴란드) 등이 대표로 나선다. / 박소희 기자

포항

포항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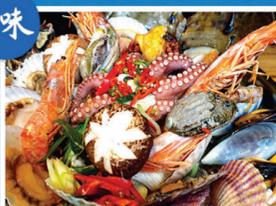
10미

1미



보리국수

2미



해신탕

3미



영일대 조개구이

4미



등푸른막회

5미



라메기

6미



구룡포대게

7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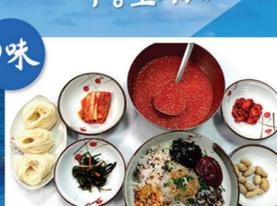
포항초비빔밥

8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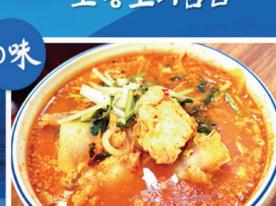
소머리곰탕

9미



물회

10미



아구탕



poohang

'용띠 절친'들의 '택배는 몽골몽골'... "20대로 돌아간 느낌"

김종국·차태현·장혁 등 출연... '유퀴즈' 출신 PD 연출

택배 인프라가 부족한 몽골에서 '용띠 절친' 가수 김종국, 홍경민, 배우 장혁, 차태현, 홍경인과 열다섯 살 차이 나는 막내 배우 강훈이 택배를 배송한다.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JTBC 새 예능 '택배는 몽골몽골'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은 입을 모아 "몽골도 몽골이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은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장혁이 꺼낸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장혁은 "말 타러 몽골 가자"는 말을 꺼냈다가 실제로 가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보면 오랜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경험을 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까지 2천km를 횡단했죠. 일교차도 20도 가까이 됐어요. 경치가 달라지고 옷차림도 변하는데 그런 부분이



JTBC '택배는 몽골몽골'

재미있을 거예요."

출연진은 온갖 험난한 조건 속에서 낙타, 말, 뗏목 등의 운송수단으로 대초원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유목민에게 택배상자를 전달한다. 이들은 택배를 배송하며 만나는 유목민들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그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도 한다.

김종국은 "예능은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색다른 모습이 나온 것 같다"며 "끝날 때 PD님께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했다.

홍경민은 "다들 나이가 들어 이제 각 분야에서 선배 입장인데 저희끼리 만나면 다시 젊었고 즐거웠던 20대로 돌아간 느

낌"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여행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26년 우정을 자랑하는 '용띠 절친'들의 여행에 강훈이 막내로 합류했다. 예능에 처음으로 고정 출연하는 강훈은 "몽골의 풍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인생을 살아 가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형들을 만나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택배는 몽골몽골'은 tvN '유퀴즈' 출신 더블럭과 JTBC '손없는 날' 등을 공동 연출한 김민석·박근형 PD가 연출을 맡았다.

김 PD는 "(출연진이) 몽골에서 장시간 이동하고 의식주를 함께하면서 고립된 상황에서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었고, 그게 몽골이어서 더욱 빛이 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간 토크쇼를 연출하며 단련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오후 11시 첫 방송. / 홍승연 기자



tvN '형따라 마야로'

'형따라 마야로' 차승원

"미처 몰랐던 마야문명 배웠다"

'차세프'로 삼시 세끼를 푹푹딱딱 만들 어내던 차승원이 3년 만에 '마야 박사'로 예능 프로그램에 돌아왔다. 배우 김성균, 그룹 더보이즈 주연과 함께 탐사원정대를 꾸려 고대 마야 문명이 퍼져있는 멕시코로 떠났다.

차승원과 김성균, 주연은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tvN 새 예능 '형따라 마야로: 아홉 개의 열쇠'(이하 '형따라 마야로') 제작발표회에서 '탐사원정대'가 된 소감을 밝혔다.

차승원은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셀(이야기)'을 풀었다가 일이 커졌지만 예전부터 중남미에 퍼진 이슬람 문명, 마야 문명 등에 관심이 있었다"며 마야로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형따라 마야로'는 '차박사' 차승원을 따라 김성균, 주연이 멕시코로 떠나 고대 마야 문명을 탐사하는 예능이다.

차승원은 "(이 프로그램은) 두 동생과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며 "저도 미처 몰랐던 마야 문명을 배우고 동생들에게 제가 아는 지식을 조

금이라도 얘기해주는 재미가 있었다"고 여행 소감을 말했다.

예능에 처음 고정 출연하는 김성균은 "우리의 여행 여정이 커다란 스토리로 작품이 되는구나 싶었다"며 "생동감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익숙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원정대는 마야의 비밀을 간직한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아홉 개의 열쇠를 찾기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탐사 예능인 만큼 직접 요리하며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차승원이 예능 '삼시세끼'와 '스페인 하숙'에 이어 이번에도 '차세프'로 나선다.

차승원은 "삼시세끼" 때도 음식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선하게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면서도 "식재료는 비슷해도 음식 문화와 재료의 쓰임이 달라 현지에서 장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재미와 희열이 있었고, 맛있게 먹어주는 동생들에게 고마웠다"고 떠올렸다.

/ 김준호 기자

권은비 "신흥 서머퀸 수식어 감사 여름마다 생각나게 할 것"



냈고, 최근 '워터밤' 같은 야외 음악 페스티벌 무대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같은 인기에 대해 "주변에서 많이 나온다고 응원을 많이 해 주고 좋아해 주신다"며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권은비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언더워터"는 대중의 관심으로 역주행했다. 이번 '더 플래시'는 역주행도 좋지만, 정주행하고 싶다"고 순위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언더워터"가 지난해 가을에 나왔는데 울여름 많은 사랑을 받아 너무 신기했고 감사했다"며 "오히려 여름에 나왔으면 더 청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고, '여름에 빨리 널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꺾민호 기자

"여름마다 권은비가 생각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름하면 권은비'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너무 좋겠어요."

결그룹 아이즈원 출신 가수 권은비는 2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첫 싱글 '더 플래시'(The Flash)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신흥 서머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권은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언더워터'(Underwater)로 '차트 역주행'을 이뤘



롯데백화점, 잠실 월드몰서 보이그룹 '트레저' 팝업 운영, 앨범·굿즈 선보여

롯데백화점은 오는 7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YG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트레저' 팝업 매장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트레저의 새로운 앨범 정규 2집 '리부트'(REBOOT) 분위기로 꾸민 이번 팝업에서는 앨범과 함께 70여종의 굿즈를 선보인다.

또 팝업 기간 매일 방문한 고객에게

는 트레저 포토 카드 세트 등을 제공하고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멤버들이 사인한 굿즈를 증정한다. 팝업 매장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쾌적한 관람을 위해 현장에 마련된 키오스크에 등록하고 순서대로 입장할 수 있다.

/ 최주영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해? #GOGO! #가보자고

속초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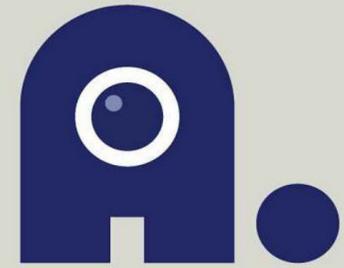
#속초해수욕장 야간개장 2023. 7. 22.(토) ~ 8. 6.(일) #방9시까지

60주년 기념 (60주년)

속초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 WAVE

내 손안의 AI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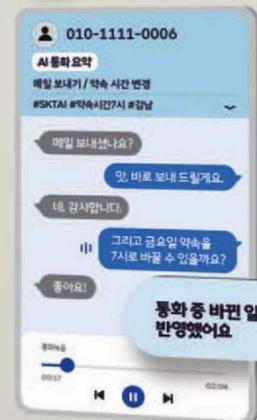
AI 더욱 진화된 AI 대화
나를 도와주는 똑똑한 A. 대화, A. 프렌즈와의 감성 대화까지



AI 개인 맞춤형 AI 추천
사용 이력, 개인 취향 기반의
정교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AI AI 통화 비서
통신 AI 기술로 통화 내용
자동 요약 및 스케줄 관리



A. 설치하기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